

## 히로시마 大學

金 丁 煥  
(高麗大 師範大 學長)

### I. 廣島(히로시마)와 廣島大學

「히로시마(Hiroshima)」라 하면 우리는 먼저 原子爆彈을 연상한다. 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정확하게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단 한 방의 원자폭탄은 이 平和都市이자 敎育都市를 완전히 파괴했고 20여 만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버섯처럼 피어오른 원자탄을 처음에는 모두 「特殊爆彈」인 줄로만 알았다. 이것이 원자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인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결국 이 폭탄으로 일본의 저항은 완전히 끝났고, 2차 대전도 종말을 고하였다. 美國은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의 비극을 미리 막는 戰略이라고 변명하였다. 어쨌든 廣島는 이런 都市로 세계에 알려졌다. 세계의 平和主義者들은 입을 모아 “no more Hiroshima”를 외치고 있다.

몇 년간은 풀 한 포기도 돌아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바로 그곳에도 어김없이 봄은 돌아오고 들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인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로시마 市民들은 숙연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제 히로시마는 平和의 상징,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른 어린 羊의 상징이 된 것이다. 廣島大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의 인식이 꼭 필요하다.

「廣島大學」이라 하면 우리는 또 「廣島高師」를 연상한다. 廣島高師는 東京高師, 東京女高師, 奈良女高師와 더불어 일본의 名門學校로 이름 높았고, 당시의 師範學校나 中學校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선망한 학교다.

일본이 富國強兵의 길을 우선 敎育에서 찾았을 때 맨 처음 시작한 것이 義務敎育과 師範敎育의 충실하였고, 그 다음이 中等敎育의 擴張과 高等師範學校의 창설이었다. 일본은 敎育에 最優先順位를 두는 정책으로 明治維新 이후 불과 100년 남짓한 사이에 아시아의 後進國에서 일약 世界의 經濟大國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底力은 바로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한 敎育投資에 있다. 名著 「世界文化史」를 쓴 영국의 역사학자 H.G. 웰스도 일본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急速한 成長은 世界史의 하나의 奇跡인데, 그것은 敎育이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원자탄으로 파괴되었던 廣島大學은 다른 대학에 비해 그 후 더 발전을 하였다. 일본 국민들이 廣島大學의 再建을 日本 再建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廣島大學은 일본이 얼마나 敎育에 힘쓰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일본의 「소우원도우 대학」이 되었다.

原子彈의 도시 히로시마, 일본 再建의 상징인 히로시마 대학, 이 두 인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廣島大學이

일본의 中國·西國地方의 文化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地方大學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地方大學」이라 하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서울에 있는 S대, K대, Y대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여타 지방대학은 「별 볼일 없는」 대학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잘못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균형적 발전은 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우리 나라의 經濟的, 文化的, 그리고 民主的 發展은 저하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각 지방마다 行政的 自治, 經濟的 自足, 地方的 文化의 特性을 누리 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地方大學이 그 歷史와 傳統 그리고 個性을 자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北海道 지방에는 北海道大學, 東北地方에는 東北大學, 關東地方에는 東京大學, 中部地方에는 名古屋大學, 近畿地方에는 京都大學, 大阪大學, 神戶大學, 中國·西國地方에는 廣島大學, 그리고 九州地方에는 九州大學이 있다. 이 대학들은 모두 國立으로 그 지방의 학문·문화의 중심이다. 男·女 私學의 名門들도 각 地方에 흩어져 있다. 예를 들면 東京의 早稻田大, 慶應大, 京都의 同志社大, 神戶의 關西學園 등이다.

우리가 廣島大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視角에서 보아야 하며, 이런 視角들은 우리 大韓民國의 발전과 우리 靑島民族의 文化的 發展을 위해 앞으로의 大學政策에 많이 참고가 되어야 하리라고 여겨진다.

다음에 필자는 廣島大學에서 몇 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학의 특색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示唆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資料를 토대로 하면서 피력해 보고자 한다.

## II. 廣島大學의 沿革과 組織

이 대학은 1949년에 綜合大學으로 발족했으나 그 역사는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13개의 學部에 在籍 학생수는 학부, 대학원을 포함하여 약 12,000명이며, 1,600명의 敎員을 포함하여 교·직원은 약 3,300명이다. 그 학생 규모

는 일본의 國立大學 95개 중에서 세번째로 크다.

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改編되기 전의 역사 때문에 현재는 廣島縣 안의 다섯 개 地域에 캠퍼스가 흩어져 있으나, 1973년 長期計劃이 확정되어 하나의 캠퍼스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새 캠퍼스는 현재의 히로시마市에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西條(사이쵸)에 위치하며, 197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82년에는 최초로 工學部가 이전했다. 이 통합화 계획은 1990년에 완성될 것이다. 이 西條市는 東廣島市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히로시마대학은 그 지방에 있었던 10여 개의 학교들을 병합하여 1949년 종합대학으로 발족하였다. 이 10여 개의 학교들의 역사도 다양하다. 이 대학의 기원을 1875년에 두는 것은 교원양성 교인 白島學校가 1875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이듬해에 廣島縣立師範學校로 발전하였다. 이 대학이 敎員養成 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도 그 母體가 교원양성소인 데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廣島高等師範學校가 1913년에 창설되었고, 이것이 이 대학의 가장 큰 모체가 된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일이다. 지방에 高等師範學校를 설치한 정부의 용단은 그 후 큰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일본의 등쪽의 敎育의 本山은 東京高師요, 서쪽의 그것은 廣島高師가 되었다.

교원 양성기관과는 다른, 이 대학의 모체로는 1923년에 창설된 舊制의 廣島高等學校, 1944년에 창설된 廣島工業專門學校, 1945년 패전 직전에 창설된 廣島縣立醫學專門學校가 있다.

이 대학의 역사에서 特記할 것, 그리고 우리가 깊이 吟味해야 할 것으로 1929년에 高等高師울타리 안에 창설된 廣島文理科大學을 들 수 있다. 이 單科大學은 원래 사범학교, 전문학교,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것은 表面上의 이유이고 실은 高等師範學校보다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깊고 폭이 넓은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교사가 될 사람은 敎育技術에 그치지 않고 學問的 背景도 깊어야 한다. 이런 認識이 文理科大學을 낳게 한 것이었다. 高師와 文理大는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文字 그대로 人間的으로 폭이 넓고 學問的으로 깊은 중등교사를 양성해 내어 日本의 경이

적인 발전의 原動力이 되었다.

廣島大學의 1983년도 5월 1일 현재의 규모는 <表 1>, <表 2>와 같다.

이 표에서 學部의 入學定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類似學部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水畜産學部는 生物生産學部에, 政經學部는 經濟學部에, 그리고 教育學部 福山分校는 教育學部(本校)에 통합됨을 말한다.

廣島大學은 약 3,300명의 교·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 대학 교원이 약 1,600명, 부속 학교의 초·중등교원이 약 200명, 그리고 교원 이외의 직원이 약 1,500명이다.

한편 10여 곳에 흩어져 있는 土地·建物の 넓이를 보면, 이전중인 東廣島市분까지 포함해서 土地가 약 300만 m<sup>2</sup>, 建物이 약 45만 m<sup>2</sup>이다.

廣島大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歷史, 學生의 質, 教育體制, 教·職員의 數, 그리고 施設·設備 어느 면으로 보거나 日本이 자랑할 수 있는 대학의 하나다.

### Ⅲ. 廣島大學의 特色

히로시마대학은 일본의 다른 대학에 비해 特色이 있는 것,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 우리 나라에 여러모로 示唆의 示를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하여 본다.

<表 2> 學生數(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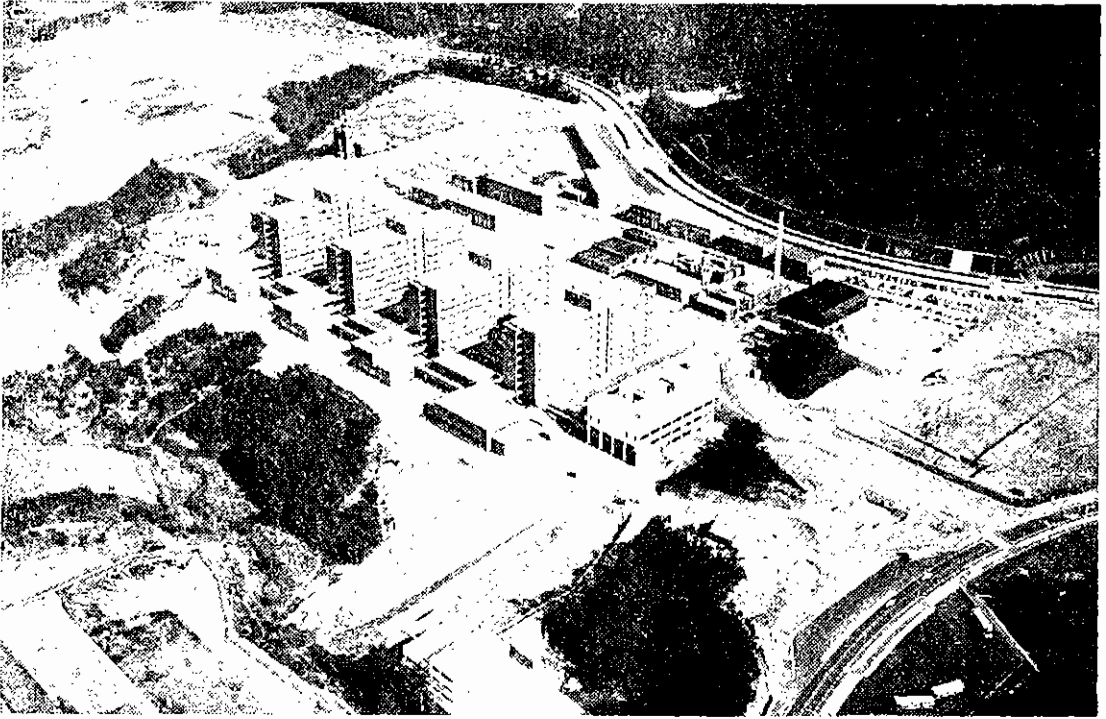
研究科名	修士課又は博士課程前期				博士課程又は博士課程後期				合 計		
	入學定員	男	女	計	入學定員	男	女	計	男	女	計
地域研究研究科	20	23	12	35	—	—	—	—	23	12	35
環境科學研究科	30	55	5	60	—	—	—	—	55	5	60
文學研究科	56	79	15	94	28	63	15	78	142	30	172
教育學研究科	56	67	22	89	20	53	2	55	120	24	144
學校教育研究科	60	49	27	76	—	—	—	—	49	27	76
法學研究科	24	11	1	12	—	—	—	—	11	1	12
經濟學研究科	20	8	0	8	—	—	—	—	8	0	8
理學研究科	96	130	6	136	50	104	2	106	234	8	242
醫學系研究科	20	26	7	33	70	64	5	69	90	12	102
商學研究科	—	—	—	—	30	45	1	46	45	1	46
工學研究科	132	286	4	290	43	48	4	52	334	8	342
農學研究科	36	55	9	64	—	—	—	—	55	9	64
計	550	789	108	897	241	377	29	406	1,166	137	1,303

<表 1> 學生數(學部)

學部名	入學定員	男	女	計
總合科學部	120	377	152	529
文學部	150	314	303	617
教育學部	295	518	264	782
教育學部(東雲)	—	1	3	4
教育學部福山分校	—	167	271	438
學校教育學部	350	637	827	1,464
法學部 { 第一部	150	591	48	639
{ 第二部	90	401	87	488
經濟學部 { 第一部	150	596	28	624
{ 第二部	90	398	28	426
政經學部 { 第一部	—	5	0	5
{ 第二部	—	32	1	33
理學部	220	849	122	971
醫學部 { 醫學科	120	645	82	727
{ 總合藥學科	60	64	174	238
齒學部	80	413	66	479
工學部	500	2,107	34	2,141
生物生産學部	110	356	97	453
水畜産學部	—	6	0	6
計	2,485	8,477	2,587	11,064

#### 1. 總合科學部

입학 정원이 120명인 이 學部는 이 대학의 가장 큰 자랑거리의 하나다. 원래 이 학부(우리 나라 관념으로는 대학)는 學問間的 벽을 철거 近



接關聯學問이 協同하여 연구하자는 데에 그 설치 목적이 있다. 이 학부는 단 1科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한 학과에 4개의 코오스와 16개 講座가 있다.

4개 코오스는 ① 地域文化 코오스, ② 社會文化 코오스, ③ 情報·行動科學 코오스, ④ 環境科學 코오스이며, 16개 講座는 ① 日本研究, ② 아시아 연구, ③ 유럽 연구, ④ 英·美 연구, ⑤ 比較文化 연구, ⑥ 社會文化 연구, ⑦ 정보·행동기초 연구, ⑧ 인간행동 연구, ⑨ 기초과학 연구, ⑩ 자연환경 연구, ⑪ 영어, ⑫ 독일어, ⑬ 프랑스어, ⑭ 中國語, ⑮ 노서아어, ⑯ 保健體育이다.

1982년에 처음으로 학부 졸업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학부 졸업생 중 博士課程에 진학한 사람은 없으나 앞으로 이 학부의 특색을 살려 여러 학문이 협동해야만 풀릴 共同研究 또는 綜合的 研究로 좋은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2. 敎育學部

히로시마대학의 학부 학생은 약 11,000명인데

이 중에서 2,500명이 敎育學部 학생이다. 그러나 이 대학 학생의 약 23퍼센트가 교육학부 소속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히로시마대학 안에서 차지하는 교육학부의 比重은 엄청나게 크다. 한 종합대학 안에 한 학부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는 아마 일본은 물론이요, 세계에서 드물 것이다. 이것은 이 대학이 敎員養成을 主軸으로 하는 학교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본의 國力의 伸張, 敎育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히로시마대학은 동쪽의 筑波大學(쓰구바대학, 전 東京高師, 東京文理大, 東京敎育大學을 통합하여 발전한 새로운 유형의 대학)과 더불어 日本의 敎育界 및 敎育學界를 東西로 兩分하는 敎育계의 名門大學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大學이 전통과 개성을 자랑하며 계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대학에서 역력하게 볼 수 있다.

이 대학의 敎育學部는 맘모스學部로서, 좀더 자세히 보면, 순수하게 敎育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3개 학과, 즉 敎育學科, 心理學科, 敎科 敎育學科를 거느린 「敎育學部」와, 5개의 敎員養成課程, 즉 小學校 敎員養成과정, 中等學校 敎

원양성과정, 盲學校 교원양성과정, 聾學校 교원양성과정, 그리고 養護學校 교원양성과정을 거느린 「學校教育學部」로 구성되어 있다. 이례서 하나의 教育學部 안에서 각 단계, 각 종류의 학교 교사가 다 양성된다.

### 3. 教科教育學

교육학부의 대학원 과정인 教育學研究科에는 일본에서도 아주 드문 教科教育學(영어로는 Specialized Curriculum Studies) 專攻이 개설되어 있다. 이 전공은 各 教科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을 연구하는 영역으로서 실은 教員養成大學에서는 一般 教育學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教科教育學이 教育系 大學에서조차도 학문적으로 뒤져 있고 전문가가 거의 없어 開設은 해 놓고도 애먹고 있는 실정에 있다.

히로시마대학은 이 教科教育學 研究에 힘을 써 碩·博士課程을 두고 많은 전문가를 길러 내 일본의 여러 교육계 대학에 졸업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소개한 總合科學部 대학원 과정의 「地域研究」, 「環境科學」과 더불어 이 대학의 아주 특색 있는 學問分野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4. 大學教育研究센터

이 대학의 附置研究所로는 理論物理學研究所와 原爆放射能醫學研究所가 있고, 學內 共同教育研究 施設로는 大學教育研究센터, 核融合理論研究센터, 總合情報處理센터, 保健管理센터가 있다. 이 중 아주 특색 있는 것이 大學教育研究센터이다. 이 센터는 1972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大學·高等教育의 기본적 諸問題에 관한 연구를 大學 內외의 다양한 전문연구자의 협력 밑에 추진하며, 아울러 대학·고등교육에 관한 자료 공급, 정보 서비스를 하여 大學改革에 寄與한다.

이 센터는 창립한 지 불과 10여 년만에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국내 회의, 국제회의를 여러 번 하여 이 방면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 센터는 규모도 크다. 대학 학

장이 당연적 위원장이 되는 大學教育研究센터는 管理委員會 밑에 센터長 1명, 사무직원 4명, 전임교원 7명, 학내교원(併任)으로 구성되는 연구원 17명, 장기 체재하는 객원교수 3~5명, 그리고 學外 연구자로 구성되는 客員研究員이 3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외에 또 OB 연구원, 즉 이 시설을 거쳐간 연구원 모임이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새 類型의 大學

일본의 대학이라면 우리는 흔히 舊制의 帝國大學(北海道, 東北, 東京, 名古屋, 京都, 大阪, 九州)만을 생각하기 쉽다. 이 대학들도 제 2차 대전 종료 후 모두 몇 개 전문학교, 대학들을 흡수하여 新制의 大學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일본의 私學이라면 흔히 早稻田과 慶應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 대학에 버금가는 私學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다. 이 모든 대학들이 改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社會·文化的 要求에 맞추어 발전하기 위해 大學改革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大學改革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理念的으로는 과연 대학이 社會·文化的 變動에 꼭 맞추어 變身해야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行政的으로는 각 대학마다 쉽게 바뀔 수 없는 體質이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世界的인 大學改革의 추세에 비교적 민감하게 발맞추어 개혁되어 가고 있는 대학이 일본의 경우 筑波大學과 廣島大學이다. 이 두 대학 다 특색 있는 教育組織과 講座 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을 「새 類型의 大學」이라고도 말한다. 이 두 대학이 적어도 현재로는 舊制 帝國大學의 後身들과 그 비중이 비슷하게 발전되고 있기에 이 두 대학의 改革動向은 여타 대학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IV. 廣島大學과 韓國

위에서 우리는 히로시마대학의 이모저모를 간략하게 보았다. 히로시마대학이 우리 한국에 示唆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大學의 個性 존중이다. 일개 지방대학

에 지나지 않지만 이 대학은 그 역사가 100년이 넘으며, 敎員養成을 주축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는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지만 그 個性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개성을 歷史와 傳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요는 우리 韓國의 大學들도 모두 서로 닮아가는 平準化를 志向하지 말고 각각 그 個性을 찾아 키워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는 性急한 改革은 절대 禁物이란 것이다. 改革은 부분적, 실험적으로 장기간의 實績을 토대로 하여 試圖되어야 한다. 히로시마대학은 폐개혁된 대학의 하나이지만 자세히 보면 傳統, 歷史, 個性을 이어오는 범위 안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꼭 개혁될 것만 실속 있게 개혁되어 가고 있다.

셋째는 教育에 대한 投資의 増大이다. 學內 研究施設인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센터로 보나, 학생 12,000명에 교수 1,500명(학생대 교수비 약 8:1)인 교육환경으로 보나 일본이 얼마나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비료를 주지 않고 열매만 많이 기대하는 「精神一到 何事不成」식 강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째는 敎科敎育學의 學問的 育成·發展이다. 히로시마대학은 특히 이 면에서 일본의 유니크한 대학이다. 일반 대학의 國語國文學科와 사범대학의 國語敎育科는 어느 면에서 다른가? 전자는 國文學者를 양성하거나 國語·國文學을 학문으로 추구하는 곳이다. 반면에 후자는 國語科敎師를 양성하는 곳이다. 물론 후자라서 國語·國文學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전공 학문에 실력이 없이 어떻게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전공 학문만 잘 알면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敎師資格證 취득 요건으로 그간 國語科 指導法 2학점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다시 이것을 강화하여 國語敎育論 2학점과 國語科 敎授·指導法을 2학점, 이렇게 4학점을 취득케 하였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敎科敎育學 專攻 학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없으니까 輪番制로 돌아가면서 맡거나, 아니면 비교적 관심이 많은 교수가 맡는다. 이것이 한국의 師範系, 敎育系 大學의 현실이다. 이러고야 어떻게 敎育大學, 師範大學이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으니까 大學院에 國語敎育 專攻으로 碩士課程이나마 개설하려 하는데 이것 또한 어렵다. 대학원에 유사 전공, 즉 國語·國文學 專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國語·國文學 전공의 5개 細部專攻에 「국어교육」 전공을 하나 더 첨가하자고 사정한다. 그런데 文科大學 국어국문과 교수 중 이에 찬성하는 사람 약 반, 반대하는 사람 약 반이다. 논의는 끝 없이 이어지고 결론은 내린 것 없이 아까운 시간만 자꾸 간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결국 文科大의 국어국문학과나 師範大의 국어교육과나 開設科目이 거의 同一하다.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다섯째는 보다 많은 留學生의 交換이다. 히로시마는 九州와 더불어 한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은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앞으로 히로시마대학에 더 많은 유학생이 가고 또 그곳에서 이리 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

※ 金丁煥教授는 日本 神戶大學을 졸업한 후 廣島大學에서 敎育學 碩·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